



# 위기 관리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다른 모든 산업 부분과 마찬가지로 화학 업계는 특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은 소비자, 고객, 정부 및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업계 차원에서 효과적인 위기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물론 많은 화학 기업들이 이미 효율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나마 위기 관리와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 윤 영 대표이사  
Yoon-Young Jung  
Representative Director  
Merit/Burson · Marsteller

## 1. 위기(Crisis)의 정의

'위기(Crisis)'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Crisis 는 원래 '분리하다'란 뜻의 그리스어인 Krinein에서 유래한 의학 용어로 죽음과 회복의 경계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였다. 또한 한자로도 危機는 '위험한 기회'를 뜻하고 있어 사실상 부정적인 상황과 접하여 있는 중간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 자체는 아직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적 상황이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만 있다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 할 수 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이를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2. 위기 상황의 특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더욱 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유발한다. 하지만 모든 위기 상황은 또한 다음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갑작스러움(Surprise)

모든 위기 상황은 거의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위기 상황은 예상을 벗어난 갑작스러움을 통해 시작된다.

### 시끄러움(Increased noise)

어느 종류의 위기 상황이라도 일단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직 · 간접적으로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관심은 소문 · 추측 등의 형태로 나타나 '시끄러워'진다.

### 정보의 부족(Lack of information)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이 시끄러운 상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직·간접 적으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면 위기 상황은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결국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시끄러워진' 위기 상황은 '정보의 부족'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위기 관리가 왜 지난 몇 십년 동안 화학 업계를 비롯한 모든 업계와 홍보 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위기 상황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 연속적인 상황의 발생(Escalating Flow of Events)

추가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며 대부분 이러한 상황은 외부에서 발생한다. 결국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다.

### 통제력의 상실(Loss of Control)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상황은 이미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버리게 된다.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이제는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즉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 외부의 관심/감독 증대(Intense Scrutiny from Outside)

내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이제 외부의 관심과 감독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외부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게 된다.

위기 상황의 이러한 특성이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또한 우리가 '위기'하면 패닉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다.

## 3. 위기 관리의 접근

일반적으로 위기 관리라고 하면 발생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관리는 어떤 종류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따라서 위기 관리의 출발점은 위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여 위기 상황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에서 출발 하여야 한다.

많은 기업들은 위기 관리 팀을 구성하고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개별하며 수시로 모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 위기 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유독 물질이나 위험물을 많이 다루는 화학 업계의 경우 공장 시설 내의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위기 상황만큼이나 위기 관리의 접근도 다양하지만, 앞의 위기 상황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위기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확한 문제의 인식(Defining the Problem)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위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핵심적인 문제와 단순한 파급 효과, 혹은 현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악의 상황을 전제(Assume a 'Worst Case')

위기 관리의 또 하나 중요한 접근 방법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위기상황의 대처나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나 대법함 등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 단기적 희생을 감수(Recognize the Value of Short-term Sacrifice)

위기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리콜 등과 같은 단기적인 부담이나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추가적 위기를 방지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보 흐름의 창구를 일원화(Centralize / Control the Information Flow)

위기 관리의 핵심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따라서 외부 정보의 유입과 내부정보의 외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4.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말을 조심하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 필요한 정보/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
-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
- 공식 대변인의 부재
-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 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은 욕망
- 불필요한 사실까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걱정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위기 상황에서는 외부의 관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도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욕구를 부정확한 소문이나 추측을 통해 해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확보하고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고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활동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상황의 특성상 대상과 방법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언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한다.

## 5. 화학 산업의 특성과 위기 관리

위기 관리의 접근에 있어 다른 업계와는 달리 화학 업계는 추가적으로 독특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학 산업은 업계의 특성상 위기 관리에 있어서 그 접근이 보다 어렵다. 이는 화학 업계가 다음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부정적인 인식/선입견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면 화학 업계는 첨단·과학·기술 개발 등의 긍정적인 요인 뿐 아니라 그 실체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환경 오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업계에 있었던 여러 사고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더 강화하였다.



## 이해의 부족, 또는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

일반적으로 화학 산업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적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업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며,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학 업계의 사고·사건은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지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기술적 부분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

화학 산업은 또한 다른 업계에 비해 일반 소비자·대중에게 제조 과정이나 제품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반인 뿐 아니라 언론이나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기술적인 배경 없이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Financial Times가 주관한 Petrochemical Conference에서는 화학 업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일반인들과 업계 전문가들(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2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발표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유·화학 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표 1 : 위험 요인 비교 결과〉

10대 위험 요인	일반인 그룹 결과	전문가 그룹 결과
화학물질 폐기문제	1위	17위
수질오염	2위	11위
화학공장 사고	3위	21위
공기오염	4위	1위
유조선 / 기름 탱크 유출	5위	22위
작업 중 유해물질 인체 오염	6위	31위
음식물을 통한 농약 / 유해물질 문제	7위	25위
농약의 폐해	8위	27위
식수문제	9위	15위
실내공기오염	10위	5위

특히, 자료 중 공기 오염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업계에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화학 업계의 위기 관리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6. 결 론

위기 관리와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화학 업계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뿐 아니라 정부나 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한국RC협의회 회원사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다른 업계에 비해 효과적인 위기 관리가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위기 관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위기 관리일 것이다.

정유·화학 분야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업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중과의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면이 많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강하게 노출되는 것이 위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불행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사실 위기 관리, 특히 화학 업계의 위기 관리를 몇쪽의 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글이 간단하게나마 위기 관리에 대해 생각하여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RC협의회는 화학 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Outreach(지원확산) 활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Education Outreach와 중소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안전 아카데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Outreach(지원확산) 활동은, 비회원사와 사회 일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고 산업의 신뢰 회복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지원 활동은 회원사 단독 또는 합동으로 비회원사와 지역 주민 등에 대해 수행하며 이와 함께 Responsible Care 수행에 따른 사회 전반의 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행 지침과 실천 내용 등을 수정·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 Education Outreach



한국RC협의회는 지난 7월 14일 경상남도 거창의 셋별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 약 240여명을 대상으로 ‘Education Outreach’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화학이 왜 필요할까?” “즐거운 화학 안전” “신나는 화학 세계”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주제인 “화학이 왜 필요할까?”에서는 ‘If not for Chemical’이라는 영상 자료를 통해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화학 산업의 다양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주제인 “즐거운 화학 안전”에서는 Responsible Care® 정신과 화학 산업의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소개하여, 화학 산업이 중요한 만큼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신나는 화학 세계”에서는 TV 방송에도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친근한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팀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한 흥미진진한 화학쇼 및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화학 실험을 실시하였다. 화학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안전한 실험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실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서 ‘내가 직접 하는 화학 실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각 학년별로 준비된 화학 실험에 직접 참여하였다. 각 실험에는 안전용품이 지급되었으며, 어린이들은 화학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통해 화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한 LG화학, 바이엘 코리아, 동부한농화학, 삼남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KRCC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러한 학교 방문 Education Outreach 행사는 화학 산업이 사회의 공익을 도모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준 행사로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RC협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Education Outreach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화학 산업의 이미지 제고’라는 Responsible Care활동의 기본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번 Education Outreach는 셋별초등학교의 이한길 선생님이 한국RC협회에 요청을 하고, 한국RC협회가 이에 적극 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한양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 민간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행사 개최 후 이한길 선생님께 소감을 들어 보았다.

## 아이들에게 지원확산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 Responsible Care 협의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Outreach Program은 셋별초등학교에 여러모로 잊지 못할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행사를 통해 과학을 재미있고 새롭게 느꼈고, 교사인 전 ‘중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이 한 길 선생님  
Han-gil Lee, Teacher,  
Sat-byol Elementary School

먼저 아이들이 Outreach Program 속에서 느낀 것을 짧은 두 편의 일기 글을 통해 보여 드리려 합니다. Responsible Care의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화학 실험을 하는 3시간 동안 아이들은 그 어느 수업보다도 진지하고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아마 그 때 아이들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제목 : 화학 실험)

오늘은 4교시 동안 화학실험을 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이아이스 실험이었다. 드라이아이스는 매우 차가워서 잠깐동안에도 물건이 얼어 버린다. 또 색소가 들어간 물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었을 때 색깔이 변하기도 했다. 맨 처음에 색소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선 같기도 한 희한한 것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즐거웠다. 아 참! 오늘 우리 반에 오셨던 대학생 선생님도 우리를 재밌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수정/5학년)

7월 14일 월요일 (제목 : 화학 실험)

오늘은 화학 실험 하는 날이다. 화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아주 중요한 거다. 화학 기술이 없다면? 차, 집, 컴퓨터 등을 못 만든다. 이것은 비디오풀 본 것이다. 그리고 화학 실험도 했다. 처음에 물에 가루를 넣으니 까 부풀어 올랐다. 초록색 물이 연기를 내면서 노란 색으로 변했다. 큰 통에 있던 무언가가 ‘평’ 하며 오를 때는 깜짝 놀랐다. (권용태/5학년)

이 날 무엇보다도 과학 하면 별 재미없는 딱딱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과학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인 저는 이 행사로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 사항’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 의식’을 배웠습니다. 거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깊은 계곡과 맑은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학



습을 자주 합니다. 여기저기 피어 있는 들꽃을 그리기도 하고 큰 바위 밑이나 나무 그늘 아래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개구쟁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구쟁이들도 뛰어 다니며 자연을 즐기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에게 환경은 참 소중한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일은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안전’을 설명하는 시간은 교사인 저에게 모든 수업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행사가 있기 얼마 전 저와 우리 반 아이들은 화학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주제는 ‘물과 아세트에 녹는 물질 알아보기’였습니다. 간단한 실험 도구 몇 가지와 용액, 설탕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나눠 주고 물과 아세트 으로 설탕과 소금을 녹이는 진지한 아이들 사이를 다니며 실험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들 속에 있었으면 서도 한 아이가 겪은 ‘사건’을 전혀 모른 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과학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하려 는데 “선생님, 용태가 이상한 것 먹었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야 당황하며 용태에게 “괜찮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이들 앞에서 Responsible Care의 안전 의식을 설명하시는 분을 보며 전 그 때 그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험복과 보호 안경, 실험용 장갑, 마스크를 화학 실험을 시연하는 연구원들 뿐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하지 않는 분도 갖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Outreach Program은 아이들에게 ‘~하면 안된다.’ 는 말로 제재하는 것이 ‘안전’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보여 주고 직접 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 니다.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낀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다가오고 손에 잡히 는 무언가를 직접 볼 수 있고, 갖고 놀게끔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겐 ‘어 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나?’ 하는 고민을 종종 합니다. 이번 행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환경과 안전을 어떻게 가르 칠까?’ 하는 물음에 적합한 대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범 이사님은 ‘환경’을 말씀하실 때 거창의 맑은 물과 산을 직접 돌아본 다음 Presentation 자료로 만들어 아이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었고, ‘안전 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서 시연자들이 직접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실험하여 아이들이 실험하는 사람은 저런 것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실험 속에서도 눈을 보호하는 고글을 쓰고 실험을 하게 함으로써 ‘안전은 생활’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Responsible Care의 Outreach Program이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다니는 부모를 상징하는 말이라면, Outreach Program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 해 각 지방을 찾아 다니는 말이 될 테니까요.



##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

한국RC협의회에는 71개 일반 회원사와 8개 준회원 단체들이 가입하여 Responsible Care®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Responsible Care 활동은 주로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Responsible Care라는 명칭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 · 안전 · 보건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화학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Responsible Care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의 Responsible Care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RC협의회는 금년 6월 27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다우케미칼의 후원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 주도의 환경 · 안전 · 보건 대책을 중소기업으로 전파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화학 산업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10차의 순회 교육으로 계획된 이 행사는 현재 6차까지 진행되었다. 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정부 정책, Responsible Care의 필요성 및 실천 사례, 성과 소개 등을 공통 내용으로 하고, 경영자 과정에서는 Responsible Care 실행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이, 실무자 과정에서는 Responsible Care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중소기업의 Responsible Care 실행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된다.

한국다우케미칼에서는 사회 공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번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을 적극적인 참여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적어도 Responsible Care는 대기업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동임을 인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esponsible Care의 Peer review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Responsible Care를 실천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사례 및 자료 등을 지원 받음으로써, 조기에 중소기업 내의 Responsible Care 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환경 · 안전 · 보건 아카데미 일정

제 1차	2003. 6. 27.	서울	경영자 대상
제 2차	2003. 7. 11.	인천	경영자 대상
제 3차	2003. 9. 5.	부산	경영자 대상
제 4차	2003. 9. 25.	울산	경영자 대상
제 5차	2003. 10. 10.	대구	경영자 대상
제 6차	2003. 10. 24.	인천	실무자 대상
제 7차	2003. 11. 3.	서울	실무자 대상
제 8차	2003. 11. 21.	부산	실무자 대상
제 9차	2003. 12. 5.	울산	실무자 대상
제10차	2003. 12. 19.	대구	실무자 대상





## 아시아 · 태평양 Responsible Care대회 (APRCC) 의의와 과제

한국RC협의회 주최로 제 8회 APRCC가 11. 4~7.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APRCC의 역사와 이번 서울 대회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김 영 찬 사무국장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

세계 화학산업계는 화학산업의 신뢰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환경 · 안전 · 보건의 자율 개선 활동인 Responsible Care®를 전개해오고 있다. Responsible Care®는 화학물질의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Life cycle에 걸쳐 환경과 안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업계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협력기구에는 상위그룹으로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가 있으며 이 협의회에는 Responsible Care 추진그룹인 RCLG<sup>1)</sup>가 있어 매년 전세계국가 Responsible Care 단체 등이 참가하는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Responsible Care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해 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 태평양 등 화학산업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통해 화학산업의 환경안전 및 Responsible Care관련 정보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금년 11월 4일~7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 8회 아시아 · 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APRCC)는 Responsible Care의 지역별 국제대회의 하나로서, 아태지역 각 국가에서 개최되어 이 지역에서의 Responsible Care 확산에 기여해 왔다. 제 1회 대회가 국제화학제조자협회(AICM) 주최로 1995년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후,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대만(타이페이), 중국(상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발리)에서 회원국가의 Responsible Care추진단체가 주관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이제 제 8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APRCC 초기에는 회의 목적에 대한 선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나 점차 그 내용을 넓혀 갔고, 제4회 타이페이 대회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esponsible Care추진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도입되어 공식 일정 이 끝난 후에 공동의 관심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Responsible Care추진단체 대표들이 경험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일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RC 협의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는 APRCC의 성공 및 미진한 점에 대한 평가와 공개토론이 이루어져, 차기 APRCC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가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최근 대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APRCC 주최자들은 항상 이전 회의의 경험을 보완하고 새로운 회의에 그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왔다. 이것은 단지 회의의 조직적 측면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 왔다.

1) RCLG회원국은 현재 4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46번째로 2000. 9. 20일 가입.



제 8회 대회는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KRCC)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제 Responsible Care 공동체가 이번 서울 대회에 거는 기대는 특히 크다. 지난 2001년 차기 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하면서, 각 국의 Responsible Care 관계자들은 언론, NGO 등 이해당사자의 대회 참여 및 APRCC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한국Responsible Care 협의회 측에 피력해 온 바 있다. KRCC와 APRCC 준비위원회(위원장 : 정종구, 김범)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 8회 서울 대회의 주제를 "Responsible Care® 와 사회공동체 - 완전한 협력을 위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APRCC 서울 대회의 주요 특징과 의의는,

첫째, 기존 회의와는 차별화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가자가 필요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즉 RC의 6개 실행 분야(근로자의 안전보건, 공정안전, 오염방지, 지역사회 인식과 비상대응, 유통, 제품전과정책임주의)를 중심으로 Workshop과 Forum을 구분하여, Workshop에서는 각 국가, 기업의 사례와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RC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Forum에서는 패널 토의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 8회 APRCC는 화학기업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정부, 학계, 소비자, 중소기업, NGO, 미디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회로 기획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 발리대회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제기된, 차기 APRCC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화학산업은 신뢰 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Responsible Care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며, 환경·안전·보건 개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화학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활동들과 스스로에 대해 엄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화학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이 Responsible Care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이번 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북미, 유럽 등의 Responsible Care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회 참가자들은 세계 환경·안전·보건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넷째,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Network를 구축하여 APRCC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APRO<sup>2)</sup>가 출범하게 된다.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APRCC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국과 상호 협력하고, 12개 나라의 대표들로부터 각국의 정보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다른 지역에서의 Responsible Care관련 회의에 대한 정보 확보, APRCC의 회의 개최시 연사 및 의제 선정에 관한 협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Responsible Care 기관/협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의 ICCA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APRO는 지역 내 단체와 기업 등 Responsible Care관련 모든 주체들이 Responsible Care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아태지역의 총괄협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와 APRCC 준비위원회는 이번 제 8회 서울대회를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자발적인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 즉 Responsible Care가 보다 활기차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APRCC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화학산업 및 환경·안전·보건에 종사하는 모든 실무자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세계 화학산업의 환경안전 동향과 Responsible Care 실천에 대해 유용한 정보와 친밀한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Webpage : [www.aprcc.com](http://www.aprcc.com))

2) 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Organization, 우리말의 '앞으로'와 발음을 같이함



# 제8회 아시아 · 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

2003년 11월 4일~7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

"Responsible Care와 사회공동체 ; 완전한 협력을 위해"

## DAY 1 2003년 11월 4일, 화요일

09:00~19:00	등 록
14:00~15:00	APRO Meeting (회원국 대표자 모임)
15:30~17:00	좌장, 발표자 사전 회의
19:00~	Cocktail Reception

## DAY 2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 장소 : 하모니볼룸

09:00~10:30	개 회 식	
	개회사	APRCC 2003 공동준비위원장(정종구, 김범)
	환영사	노기호 KRCC 회장
	경축사	한명숙 환경부 장관
	세계를 향한 도전	RCLG 회장
11:00~12:00	전체 회의 I	기조연설 1~3(바이엘, 다우, LG화학)
13:30~15:00	전체 회의 II	기조연설 4~6(롬엔드하스, 바스프, 듀폰)
15:30~16:30	APRO 창립 행사 및 APRCC 시상식	
19:00~	Gala Dinner	

## DAY 3 2003년 11월 6일, 목요일

■ 장소 : 하모니볼룸

### 워크샵 1 : 비상 대응 (Emergency Response) (08:30 ~ 10:00)

좌 장	정상태 교수, 인제대학교, 화학방재정보센터, 대한민국
발 표 1	대만의 선진적 비상대응체계 구축 사례(Te-Hui Yeh, ERIC-ITRI 대만)
발 표 2	비상대응 정보제공 서비스 북미대륙의 사례(Michel Cloutier, CANUTEC, transport Canada, 캐나다)
발 표 3	화학물질 유통과정에서의 비상대응-BP의 위기관리/ 비상대응 체계를 중심으로.(Hari Anan, BP, 말레이시아)

### 워크샵 2 : 유 통 (10:30~1200)

좌 장	Tim Kemp, DuPont, Singapore
발 표 1	유통과정 위험성 평가 Process(정제익 이사, Dow Chemical, 대한민국)
발 표 2	수송안전 관리방안(임우빈 이사, Rohm and Haas, 대한민국)
발 표 3	바람직한 유통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접근 방향(Lilie N. Sankrib, KNRCI, 인도네시아)

### 워크샵 3 : 오염 방지(Pollution Prevention) (13:30~15:00)

좌 장	정희석 과장, 환경부 화학물질과, 대한민국
발 표 1	오염방지를 위한 현실적 접근방안(Ayako Kosone, Tosoh, 일본)
발 표 2	오염물질배출 "Zero"화 활동을 통한 오염방지(임창희 팀장, LG화학, 대한민국)
발 표 3	NGO와 화학산업 NGO와 산업계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서주원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워크숍 4 : 제품전과정책임주의와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관계성(15:30 ~ 17:00)**

- 좌 장 Judy Castledine, Dow Chemical, Hong Kong China
- 발 표 1 제품전과정책임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동반자와 유통업자의 역할-정보기술을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Mitsubishi Chemical社의 사례 (Tadao Iguchi, Mitsubishi Chemical, 일본)
- 발 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원동력으로서의 전과정책임주의 (Christina Sobieralski, BASF, 호주)
- 발 표 3 기업의 소비자 대책(정광모 회장, 한국 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포럼 1 : 지역사회 인식 - Community Advisory Panels(CAPs) (08:30 ~ 12:00)**

- 좌 장 Richard Robson, RCLG/CEFIC
- 발 표 1 성공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CAPs 활동 (Gerry Kennedy, Methanex, 뉴질랜드)  
(류종천 이사, BASF, 대한민국)
- 발 표 2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 본 대중과 Responsible Care의 조화로운 관계구축 (최성환 전문기자, 조선일보, 대한민국)
- 발 표 3 Responsible Care : 기회와 위험 (Debbie Jackson, Careline, 몰타)
- 발 표 4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한기양 전대표, 울산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 Panel 김재범 사무총장, UNEP 한국위원회, 대한민국
- Panel 김광련 대표이사, 새한실리켄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협회, 대한민국

**포럼 2 : 공정 안전 (13:30 ~ 15:00)**

- 좌 장 Chris van Lint, Bayer Asia Pacific, Hong Kong China
- 발 표 1 현장중심의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박금령 팀장, LG 석유화학, 대한민국)
- 발 표 2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방안 (이신재 과장, 노동부 산업안전과, 대한민국)
- 발 표 3 공정 안전 A global approach (Dave Buckland, Akzo Nobel, 네덜란드)
- Panel 윤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포럼 3 : 근로자의 안전 보건 (15:30 ~ 17:00)**

- 좌 장 Neville Hunter, Rohm and Haas, Australia
- 발 표 1 직업적 건강위해요소의 규정 및 예방(Yasunori Yoshioka, Nippon Paint, 일본)
- 발 표 2 통합적관리시스템으로 본 안전과 보건(Barry S.Dyer, NZCIC, 뉴질랜드)
- 발 표 3 Responsible Care와 노동조합 (Katsutoshi Kato, Federation of Energy and Chemistry Workers Union, 일본)
- Panel 정재희 교수, 서울산업대, 대한민국

**DAY 3 2003년 11월 7일, 금요일****장소 : 하모니볼룸**

- 폐회식 Workshop과 Forum에서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발표  
KRCC 회장이 '서울 선언문'을 발표
- Plant Tour 대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방문

## ● 2003년도 제 2회 이사회 개최

한국RC협의회 2003년도 제 2회 이사회가 노기호 회장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 서울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식 Responsible Care Network으로서 발족할 예정인 APRO(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Organization)와 관련하여, KRCC가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환경부 지원 하에 운영되어 온 화학방재정보센터 (Chemical Emergency Information Center)의 민간 운영을 위한 참여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APRCC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



## ●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

한국RC협의회는 본 회 가입을 신청한 동우화인켐(주), 머크(주), 폴리미래(주)에 대하여 제 1회 이사회 서면의결을 통해 지난 7월 15일자로 가입을 승인, 통지하였다.

### ■ 신규회원사 (New Members)



김 상 렬 Kim, Sang-ryul  
동우화인켐(주) 대표이사  
President, Dongwoo Fine-Chem Co., Ltd.



베르너 파이퍼 Werner Pfeifer  
머크(주) 사장  
President, Merk Limited - Korea



조 진 옥 Chin-wook Cho  
폴리미래(주) 대표이사  
CEO/President, PolyMirae Company Ltd.

## ● 제 1회 KRCC 아카데미 개최

한국RC협의회는 환경·안전·보건 관련 교육 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례화 하기 위하여 KRCC아카데미를 개설하고, 6월 18일 전경련회관 특1회의실에서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법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제 1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노기호 KRCC 회장은 인사말에서 "KRCC 아카데미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과, 전문지식 및 이론체계를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간다면, 화학산업의 신뢰 구축과 이미지 제고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카데미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였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의 노태홍 이사가 환경관련 법규의 일반적인 내용과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Merit/Burson-Marsteller의 정윤영 사장이 비상사태 발생 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 EU 신화학물질규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1



Prof. Lucas Bergkamp  
Partner, Hunton&Williams\*

## — Profile —

- Prof.,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1997
- LL.M., Yale University, 1989
- Ph.D., University of Amsterdam, 1988

\* Hunton&Williams는 브뤼셀 소재 법률사무회사로, Bergkamp 교수는 현재 유럽의 환경, 안전, 보건 및 화학관련 법규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 한국을 방문,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정책인 REACH에 관해 강연한 바 있다.

Prof. Lucas Bergkamp is the Managing Partner of Hunton & Williams' Brussels office. He heads the Firm's European regulatory practice, and specialize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issues, product regulation, chemical law, and related trade and liability issues.

※ 본고는 지면관계상 2회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This article will be continued in the next issue.

## 1. 서론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초안이 많은 정부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REACH 즉,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허가"제도는 EU의 화학물질 법안의 범위를 세계의 어느 입안자들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확대할 것이다. 실제로, REACH는 그 범위와 영향에 있어 유일무이하다.<sup>1)</sup> 여기에는 대량의 화학물질에서부터 이른바 "물질(substances)"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까지 포함된다. 자연발생적이거나 합성된 화학물질들은 사실상 모두 물질이므로, 모든 제품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준수 의무는 화학물질 제조자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하부사용자들 및 섬유, 전자제품, 가구, 장난감 등 화학물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수입업자들에게까지 적용된다. EU는 이 규정이 새로운 "국제적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매우 광범위해질 것이다.

화학물질의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규정 초안에서는 물질(substances), 조제물(preparations), 혹은 원료나 재료가 아닌 소위 모든 "물품(article)"으로서 제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의 정부 통제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REACH 제도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의 공백"을 극복하고, 발암물질에서부터 PVC 제품에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로 인해 야기되는 내분비계 장애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환경 및 건강상의 위험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물질이란, 1981년 현재 시장에 존재하며, EINECS(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새로운 제도를 계획함에 있어, 관련 집행위원들은 예방 및 대체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 집행위원회에서는 REACH를 다음과 같이 알고자 한다. "본 제안에서는 REACH 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며, 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기구)를 조직하도록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REACH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등록(Registration)'은 산업계가 생산하는 물질에 대한 관련정보를 얻고, 그 물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요구한다.

- '평가(Evaluation)'는 산업계가 의무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 매우 우려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의 사용과 결부된 위험성이 검토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위험성이 적절하게 통제되거나,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그보다 높고, 다른 대체물질 혹은 기술이 없는 경우 그 물질의 사용은 '허가(Authorisation)'를 얻어 사용될 것이다.

REACH 시스템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제기되지 않은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는 '제한(Restrictions)' 절차가 적용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Part 2에서 REACH 제안에 대한 과정 및 배경이 간단하게 논의될 것이다. Part 3에서 REACH의 목적을, Part 4에서는 그 범위를 다룬다. Part 5는 테스트,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Part 6에서 평가를, Part 7에서는 허가, Part 8에서는 제조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한다. Part 9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적용되는 요건을 분석하며, Part 10은 배려의 의무, Part 11에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대해 논하고 끝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 2. 과정 및 배경

2001년 집행위원회는 REACH의 기초가 되는 미래의 화학정책을 위한 전략백서를 발표하고, 2003년 5월 REACH 규정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다. 백서와 규정 초안 모두는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인터넷 협의를 통하여 6,000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고, 9월말 브뤼셀에서 REACH 규정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수정된 초안은 집행위원회가 수신한 의견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약 40개의 기존 지침 및 규정을 대체하게 될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 백서의 제안을 이행할 것이며, 나아가 유럽연합 화학법안의 전반적인 수정과 확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규정 초안은 유럽 환경 NGO와 녹색당의 요구에 따르며, 결점 및 현실과의 차이가 있는 Eu의 현재 화학물질 법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재검토에 기초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물질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물질이 인류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집행위원 Wallstrom은 이러한 위험을 "용납될 수 없는 지식의 공백"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인류와 동물에 대하여 이러한 화학물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Wallstrom은 정부의 평가가 너무 늦고, 혁신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바로 규정 초안에 나타나 있는 REACH 제도이다.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EC 화학물질 법안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현재 EC의 화학물질 법안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의 방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EINECS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물질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물질들은 그 특성상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화합물을 제외하는 것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모든 신규물질 중 약 70%가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된다. 더구나 위험성평가 절차가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실시되고 일부 기존물질들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만 적용됨에 따라<sup>2)</sup>진행이 느리고 효력이 미미하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REACH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EU는 회원국 각 기관에 크게 의존하게 될 이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 기관의 실패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실패가 보다 강화된 정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언뜻 REACH는 한정된 문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일 수 있다. 기존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위험성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것은 최상의 해결책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담당 집행위원들은 기존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관료적인, 정부에 의한 화학물질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식의 공백"이란 말을 구실로 삼고 있다.<sup>3)</sup> 또한 사실상 화학물질이 모든 생산 공정과 제품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

2) 대략 140종의 기존물질들이 우선 물질로 분류되었으며, 회원국 관계당국에서 포괄적인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3) 미국의 TSCA 체계 및 일본 법안조차 최근에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ACH만큼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 3. 목 표

새로운 제도의 목표는 백서 및 규정초안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1) 인류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 (2) EU의 화학 산업의 경쟁력 보존 및 강화, (3) 내부 시장의 분열 방지, (4) 투명성의 증대, (5) 국제적인 협력, (6)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의 장려 및 (7) WTO 하의 EU 국제의무에 대한 준수 등이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새로운 REACH 시스템을 통하여, 화학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 및 안전성 보장의 측면에서 유럽이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서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집행위원회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에는 입법 및 규정에 의한 간섭과, 사실상 정부 기관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REACH가 어떻게 내분비계 장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또 내분비계 장애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REACH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및 정보가 그러한 위험성을 발견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안된 규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이 목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 사이에 요구되는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 조항들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정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 모든 화학물에 대한 허가 시스템의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공개적인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하위 사용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한 더욱 안전한 화합물을 장려함으로써"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또한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연구 및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 한다. "혁신"에 대한 위원회의 이론은 기초적으로 (i) 새로운 화합물의 개발 및 (ii) 이러한 물질이 더 안전하고 더 환경 친화적인 지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을 정부가 산업계에 직접 실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정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REACH 시스템의 궁극적인 결과로, 우리가 화학물질을 더 적게 사용하거나, 혹은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물질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물질들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REACH 규정은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화학물질을 제한함으로써 학문 및 경제 활성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에 있어서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며, 화학물질을 시장에 내 놓기 직전에 규정에 의한 제한의 위험을 가할 것이다. 두 번째 가정, 즉 화학물질이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 될 것이라고 했던 내용은 분석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REACH에서는 노출 및 화학물질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과소평가 측면은 제외하고 단지 위험 및 재해의 감소 측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과다 제공되고, 상당한 위험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확실한 위험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REACH는 우려 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목표하는 시험을 포함하여 대상에 대한 과다한 정보 및 다른 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자원을 유용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오히려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 초안에서는 예방적이고 대체적인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예방의 원칙은 필요한 조치의 실행에 있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과학적 연구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부과될 것이며, 생산자와 수입업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환경친화적"이거나, "보다 안전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대체 사용이 고려된다. 비록 대체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허가를 면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덧붙



붙이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계획을 제출하도록 장려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REACH의 범위

제안된 REACH 규정의 주요 특성은 모든 계획, 제조, 산업 및 소비자의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현행 및 새로운 화합물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적이며, 전체적이고, 일원화된 관료적 감시 체계를 창출한다는 점에 있다. REACH 법안에 따르면, 테스트 조건을 포함하고 특정 물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고유의 특성 및 사용 상태에 맞춰 조절될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의약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이 새로운 화학물질 규정 및 각각의 제품에 해당하는 법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폴리머와 중간물질들은 예외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폴리머가 여전히 허가 및 제한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폴리머가 등록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견고한 과학적 범주가 개발된 뒤에야 이 시스템이 수정될 것이다.

물질 자체, 혹은 조제물이거나 물품(article)이거나 간에 등록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들은 관계 당국이 어떤 의견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떠한 위험성을 주장하든지 상관없이 등록 후 60일을 기다려야만 제조 또는 수입될 수 있게 된다.

REACH 시스템은 현재 EC 화학물질 관련법이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조제물로 거래되는 물질 뿐 아니라, 모든 최종 물품 즉 모든 제품에 들어간 물질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EC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하여, 무역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거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REACH 규정에 따라 "EU와 비 유럽국가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새로운 규정은 "인류의 건강 및 수행되는 안전성 목표를 확신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이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위원회는 규정에 제시한 화합물에 대한 제한 없는 조건에 대해 설득할 부담을 가진 적이 없으며, 특정 용도를 위하여 사용 및 폐기(원문 그대로)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을 반드시 등록 및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용 및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드러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국제적인 무역법에 입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며, 심지어는 무역 전쟁에 불을 당길 것이다.

#### 5. 시험, 데이터 수집 및 보고

REACH 시스템은 등록, 평가 및 허가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현재의 EC 화학물질 제도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판매이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판매이전 허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제안된 시스템은 제한된 예외<sup>4)</sup>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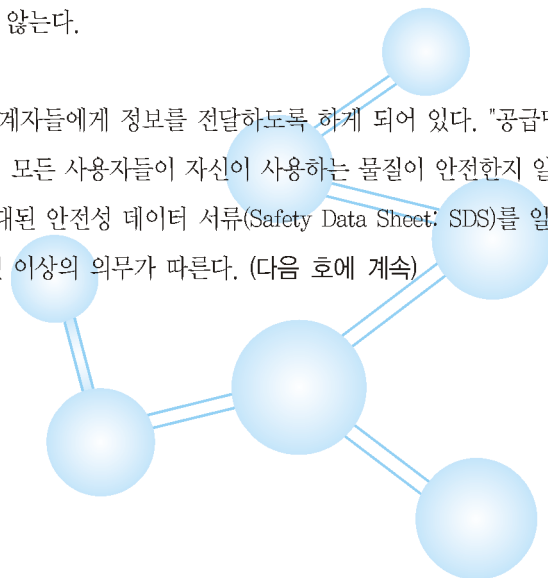
4)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C내에서 제조 및 수입 총량이 업자 당 연간 1톤을 초과하는 현행 및 신규 화합물 중 약 30,000개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의 등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 중 80%의 화합물, 즉 모든 소량 화합물(연간 100톤 이하)은 단지 등록만 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제외하고 연간 1톤 이상 생산되는 신규 및 현행, 제조 및 수입 화합물 모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 (i) 물리, 화학, 독성 및 환경독성 특성에 대한 데이터, (ii) "확인된 용도"에 대한 세부사항 및 관련된 노출 시나리오, (iii)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합물의 잔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고해야 하는 "화학적 안전성보고" 라고 하는 양식제출, (iv) 제안된 위험 감소 측정, 및 (v) 필요한 경우, 이후 시험에 대한 제안이 등록 파일에 포함된다. 만일 데이터가 적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규정의 세부조건에 따라 European Chemicals Agency가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게 된다. 등록은 등록자에 의해 화합물질이 완전히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하부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양한 면에서 지나치게 광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모든 화합물질, 모든 위험, 재해 및 노출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모든 화합물질 및 실제적인 노출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는 화합물질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규정은 테스트 및 등록의 목적에 대하여 제조되는 양을 기준으로 제조연도마다, 제조업자마다 1톤, 10톤, 100톤 및 1,000톤의 네 가지 범주를 적용하고 있다. 각 범주에 대해서는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초안에서 상세히 지정한대로 추가적인 테스트 데이터가 요구될 것이다. 부속서는 또한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규정들까지 설명하고 있다. 1톤 이하 범주에 해당하는 화합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록도 필요하지 않다. 1톤을 초과하는 톤 단위의 물질에 대해서는 만성 및 장기간 영향에 대한 부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모든 등록에 있어서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자는 적용 가능한 다른 정보 즉, "동물실험, 시험관내 실험,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 초안에서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관계 당국은 "과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시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또는 "노출 시나리오에 기초한 것"이 아닌 자료는 무시할 수 있다. 상당한 종류의 현행 물질에 대한 프로그램 수행 단계에 대해서 11년 간의 유예 기간이 허가된다. 다시 말해, 이 조건들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 근거한 것이며, 특정한 위험 및 재해, 노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임의적인 무효화(예외)는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REACH 규정 하에, 회사는 공급망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공급망 항목에 대한 정보"라고 위원회가 말하는 이 내용은 "화합물의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안전한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정보의 교환은 확대된 안전성 데이터 서류(Safety Data Sheet: SDS)를 일차적으로 이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SDS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무가 따른다. (다음 호에 계속)





# 한화석유화학(주) 울산 공장

– 지역 주민과의 대화 및 지역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

## 1.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한화석유화학(주) 울산 공장(공장장 김대식, 임직원 550명)은 지역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일찍이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사회와 기업이 서로 지원하며 상생하는 발전 모델,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초월하여 문화적 기여도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창출하여, RC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화학 공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관 및 NGO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 보전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상 훈 부장  
Sang-hoon Kim  
Senior Manager, E&SH Team  
HCC ULSAN PLANT

## 2. 전사 및 공장 환경·안전·보건 방침 상의 사회 공헌 의지

전사 방침에 "한화석유화학(주)는 지속적인 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환경·안전·보건을 기업 경영의 고유 가치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공장 방침에 "울산 공장은 방침과 목표, 프로그램 및 그 성과를 임직원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표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앞서가는 성과와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방침을 실질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부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2.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

### 1) 활동 프로그램 요약

구 분	활 동 명	대상지역	관계기관	관련단체	활동주기
환경 보 전	1. 기업체 1사1하천 정화활동 1)무거천 정화활동 2)무거천 꽃길 조성활동	울산 무거천	울산시 남구청	녹색환경보전회	월 2회 이상
	2. 환경지표수 식수 활동	울산공장 외곽	울산시청	-	년 1회
사 회 공 헌	1. 무료 급식 지원 봉사 활동	울산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울산시 남구청	울산 YMCA	월 2회
	2.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울산시 일원	울산시 남구청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월 1회 내외
	3. 청소년 교육 지원 활동	울산시 일원	울산시 남구청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년 2회 이상
	4. 전상유공자 초청행사	울산시 일원	울산보훈지청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년 1회 (호국보훈의 달)





## 2) 활동 프로그램 세부 내용

### ① 기업체 1사 1하천 정화 활동

울산시의 주요 환경 이슈인 "태화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지천 중의 하나인 "무거천"을 당사의 "1사 1하천 정화 활동" 담당 구역으로 지정 받아, 월 2회 주기적인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NGO인 녹색환경보전회(회장 송병길)와 합동으로 "무거천 꽃길 조성 활동"을 전개 하여 사루비아, 장미, 개나리 등을 심어 주변 미관을 개선하였다. 또한 수생식물인 노랑꽃 창포, 달뿌리풀 등을 심어 수질 정화 효과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녹색환경보전회와 지난 2년 여에 걸쳐 시행한 무거천 합동 정화 활동은 지역 환경NGO와 기업체가 함께하는 모범 활동 사례로 추천되어 유관 기관의 사례 발표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사 1하천 정화 활동〉



〈꽃길 조성 활동〉



〈환경지표수 조성 현황판〉



〈환경지표수 식재 활동〉

### ② 환경 지표수, 정화수 식재 활동

울산시의 주요 환경 이슈인 "대기질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알림 환경지표수 식재활동"에 참여하여, 당사가 주로 생산하는 화학 물질인 염화수소가스에 민감한 지표식물로 장미꽃을 선정하고, 공장 외곽 지역에 식재하여 RC 운동의 핵심 실행지침 중의 하나인 "오염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환경지표수 식재 현황〉

시행일	대기오염 물 질	환경지표수	조성실적	식재본수	소요비용
2003.4.2	염화수소	장미	260m	780주	600만원

### ③ 무료 급식 지원 봉사 활동

울산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YMCA 위탁 운영)과 연계하여, 복지관 "나눔의 집"에서 월 2회 임직원 및 직원 가족이 직접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여 결식 노인 및 청소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활동 기금은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전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활동 사례와 달리, 임직원 및 직원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취사 급식 활동은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함께하는 노사 문화 및 가정 문화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활동 현황(2002. 4.~2003. 4월 기준)〉

이용인원	연이용인원	직원/가족인원	활동횟수	기금지원
약 250명/일	6,500명	260/150명	26회	9,500천원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모습-1〉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모습-2〉

#### ④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산울산시 남구청,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YMCA, YWCA와 연계하여 기초 생활보호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우 세대 등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의 가정집과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주택 및 시설의 개·보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전기, 토목 등의 다양한 기술 인력이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기금으로 훨씬 많은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활동 현황(2002. 4.~2003. 4월 기준)〉

대상 지역	봉사 인원	활동 횟수	기금지원	비 고
울산지역	120명	8회	29,000천원	주택 6개소, 복지시설 2개소

#### ⑤ 청소년 교육 지원 활동

- 2002. 7. 신나는 여름방학교실 지원(36명,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 2002. 8. 자아성장캠프 "커가는 우리" 지원(40명,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 2002. 8. 남북어린이 평화캠프 참가 경비 지원(3명, 사단법인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 2003. 3. 교향악 축제 참가 지원(12명,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행사 모습-1〉



〈행사 모습-2〉

#### ⑥ 전상유공자 초청 행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울산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 전 상유공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4.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그 밖에도 한화석유화학 울산 공장은 환경보전 1사 1하천 정화 활동으로 금년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울산시장상을 수상하였으며, 3월에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한화그룹 내 최우수 사업장 및 담당자 포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자 "울산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2003. 5월)와 한화그룹 사회 공헌 담당자 워크샵에 참여하여 사례를 발표하였다.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은 울산 지역 뿐 아니라, 본사가 소재한 서울과 여수 지역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RC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학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 활동 및 어려운 이웃과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이 한층 더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